

## 전주대, 청년 대상 무료 취업 컨설팅 ‘호응’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체계적인 고용정보 제공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균철)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방학기간은 수요일과 목요일)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전주대 취업 컨설팅은 전북도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서 각 채용분야와 직무별 6명의 전문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1:1 입사지원서 상담을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다대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70여 명의 청년들이 상담에 참여하여 그중 10명의 학생들이 공기업과 금융권에 취직했다. 또,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 중 30% 이상이 서류전형에 통과하면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주대 취업 컨설팅은 단순한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지도 강화, 직무역량 교육훈련, 취업 실전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의 최종 목표인 취업을 달성을 할 있도록 돕고, 대학 내 취·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을 스스로 자기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박균철 센터장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용의 중요한 절차인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전형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싶어서 이번 컨설팅을 기획했다.”

라며, “컨설팅뿐만 아니라

많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누구든지 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2016년 개소 이후로 구직자와 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수요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지도 강화, 직무역량 교육훈련, 취업 실전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의 최종 목표인 취업을 달성을 할 있도록 돋보이며, 대학 내 취·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스스로 자기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주대 취업 컨설팅과 그 외 다른 취업 프로그램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방학기간은 수요일과 목요일)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윤복남 초산동 신임 동장, 경로당 방문 소통행정 펼쳐

윤복남 초산동 신임 동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8개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 동장은 어르신들이 복지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또한 잊지 않고 아외활동이 잊어질 가을철을 대비하여 메개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에 어르신들은 “며칠간 계속된 비로 비행 텐데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 동장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확인·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가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관계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불 안주고 안 받기 운동, 일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추석을 전후해 복무기강 확립 선불 안주고 안 받기 운동, 일직원 행동강령 준수,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선불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고 실시 되었다.

조남출 지사장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을 생활화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순창서, 직장교육서 숨은일꾼 일일이 호명 격려·사기충전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29일 오전 9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과제장 및 파출소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장교육 서두에 “북북

히 일하고 있는 감사한 분들이

있기에 순창을 더욱 빛나게 해 줍니다”라고 말하며, 호우로 청사를 돌보느라 날을 꼬박 새운 주무관님, 적은 급여에도 건강한 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내식당 관계자, 직원복지를 위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북북히 일해주시는 주무관 등 일반직 직원분들, 그리고 힘든 교대근무에도 밝고 서로 화목하는 순창경찰의 젊은청년 14명의 자랑스런 의경들에게, 김태형 서장은 이들 ‘숨은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직원들은 그들의 노고에 큰 호응으로 박수를 보냈다.

또한 “순창경찰은 복 많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웃은일 힘든 일을 거뜬히 해 내면서도 공치사 하지 않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는 순창경찰 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서, 학생 인권 중요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8일 보절 총을 방문해 학생들의 작은 폭력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간 인권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에 의하면 2018년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과롭힘(10.8%)의 항목이 처음으로 선제폭력(10.0%)을 앞질렀으며, 집단짜돌립(17.2%), 스트링(11.8%)이 뒤를 이었고 성추행 성폭행도 5.2%를 차지했다.

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같은 학교 같은 반인 경우가 (48.5%)가 암도적으로 많았고, 32.8%는 쉬는 시간에 피해를 봤다는 조사결과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경찰 주계파출소, 현금다액취급업소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주계파출소(소장 김홍근)에서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을 계기로 관내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무주읍 소재 편의점 7개소와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종업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알리고 의심스러운 상황발생시 학살음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적한 심야시간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범인은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의무위반 행위 근절 자정 결의대회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 상동지구대(대장 이철수)에서는 29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내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조직내 음주운전 등 각종 의무위반행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철수 상동지구대장은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를 통해 의무위반행위를 근절시켜 지역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